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히總統、普魯西首相에게 通貨統制權을賦與

政府側콤뮤니케發表

괴링空씨은"第二히總統"

【伯林廿七日發同盟】 히틀러總統은 廿七日 空相괴링氏에게 對外通貨 및 通貨統制에 關한 一切의 權限을 賦與하기로 決定하고 政府는 콤뮤니케를 發表하였다 [illegible]

社大黨의 代議士會

【東京電話同盟】 社大黨에서는 二十八日 午後二時부터 代議士會를 開催하고 [illegible]

=英對獨借款=

具體的折衝開始?

英銀行側은暗中活躍

【倫敦二十七日發同盟】 [illegible]

蘇州農民暴動 公安隊와衝突

【上海廿八日發同盟】 廿四日의 蘇州農民暴動은 保安隊의 彈壓에 [illegible]

伊에兩軍首腦의部下激勵 [illegible]

佛政局益混亂

五月三日決選投票로大勢決定

現內閣倒壞는未免

【巴里廿七日發同盟】 佛國下院의 總選擧는 廿六日第一回投票를 終了하였는데 [illegible]

天長節御祭典

廿九日賢所大殿서御擧行

【東京電話同盟】 天皇陛下께옵서는 今二十九日 天長의 佳節을 맞오시게되엇다 [illegible]

米新聞王하氏의 蘇聯政府觀

【하르빈發】 [illegible]

附屬地稅制準備次 臨時職員을設置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各派의對議會策

政友、更生의第一步로 新政策要綱決定

【東京電話同盟】 政友會에서는 [illegible]

今日最後로 內閣審議會廢止

【東京電話電通】 內閣審議會는 二十八日 午前十一時四十五分부터 首相官邸에 開하고 [illegible]

大藏省의 對議會最終省議

【東京電話同盟】 大藏省에서는 二十七日午後 [illegible]

閣議決定諸法律案

【東京電話電通】 [illegible]

宇垣總督의 歸任談

[illegible]

中央軍이依然 山西를制覇?

着着諸般準備進行

【天津二十八日發同盟】 [illegible]

第一黨인民政의 町田總裁演說要旨

【東京電話電通】 町田民政黨總裁의 演說要旨는 如左 [illegible]

通商擁護改正案을 特議에提出

【東京電話電通】 政府는 二十八日의 閣議에서 通商擁護法期限延長과 [illegible]

研究會도結局 大勢에順應?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首外藏三相의 演說草案決定

各閣僚의意見一致

【東京電話電通】 二十八日의定例閣議는 [illegible]

民政側陣容整備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滿鐵社債의 發行條件

【東京電話電通】 [illegible]

蘇聯의日大使 堀內次官을訪問

【東京電話電通】 [illegible]

褒彰狀을交付

田中警務局長談

警察職員四百七十名

[illegible]

陸軍進級轉補 異動發令

【東京電話電通】 [illegible]

夕刊後市況 (28日)

東亞一短評

[illegible]

罪는 쏘는독 오
[illegible]

金 白金 銀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本店 東京市下谷區

◎富士自轉車揚水ポンプ出現
一、本機는普通自轉車에 特殊機具를 裝置取付하야 婦人小兒라도 終日使用이 可能하며 一時間揚水量은實로五百石이다
一、本機는重量이輕하야 自轉車로 運搬이容易하다
一、本機는時間經濟、勞力節約、價格低廉、能率絕大、斷然農業의重寶이다
驚異的 眞實
朝鮮一手販賣特約店
原田農具店
仁川府花町一丁目七五

會葬御禮 安周洪

金千壽商店製粉部

人子宮病不姙症
原發性不姙症續發性不姙症
特效劑
官許 益母元
說明書進呈
附屬婦人子宮病相談所
太和醫院
馬山府午東洞

京城郊外淸凉里
原病院
精神、神經科
腦脊髓科
院長 原振緖
電九2643

當選謝禮
鎭南浦金融組合長 趙定鎬
昭和十一年四月 日

恩給
태극성광목
우리옷감

許允燮以下六名 死刑等重刑求刑

昨日、淸津法院에서 公判

直接派인中共赤衛隊

【청진】 중국공산당 명령하에 서무런총가지고 주의선전과 조선○○운동을 일으킴한 ○○애정상을 주로하는 계원으로 조직한 적위대(赤衛隊)조직 관계로 사건… 통화관으로 중앙부터 군 …검거되어 신공판 청진지방법원에서 …판사 …(松本)검사 입회하에 사실심리를 마치고 …

▲許允燮(二五) 住所 間島省… ▲金… 住所 …

▲李某(二五) 住所 明川郡上古面… ▲元某(二一) 住所 會寧郡… ▲某 住所 …

▲死刑 許允燮 ▲無期懲役 … ▲懲役十五年 … ▲同十年 … ▲同十年 …

【청진지국전화】 二十八일오후 一시경에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형이잇섯는데 언도공판은 오는 五월五일에 잇으리라한다.

江界精米所襲擊한 人民軍에 無期言渡

拳銃갖고渡江、二名에게發射

【신의주】 재작년 강도노주 (老頭溝)를 습격하고 군자금을 모집차로 권총을 휴대하고 작년 十一월 평북 강계읍(江界邑)에 들어와 정미소를 습격하였든 동북인민○○군(東北人民○○軍)一 八五 김천계 평북 정주군(定州郡) 서남동 … 은 二十七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판사(坂本)검사간여아래 국지(菊池) 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의 언도가 잇섯다.

범죄내용을 보면 소화九년(昭和九年)에 간도연길현 팔도구 (八道溝)로 향하여 광부로 잇다가 동七월에 동북인민○○군에 가입하야 七월二十七일 오전 一시 제二련(連)장 안봉하(安鳳夏)(조선인)이하 十여명과 무장하야

老頭溝市를 二次襲擊

연길현천보산시(天寶山市) 장경부(壯丁團)사무소를 습격하야 무기다수를 입수하고 十월十九일 오후 十시부터 위원화(隣의)에게 응지 二백명과 함께 격하야 수비병一명사살, 一명중상을 내고 노두구시가를 습격하야 一명을 부상시키고 五만一천三백원여의 손해를 입히엇으며 十년十一월末순 조선내에서의 우마(牛馬)十三두, 우차五량 기타를 약탈하야 六만一천七백여원

海軍飛行艇失跡

大尉等七名을 大搜索

【좌세보지국전화전통】 좌세보 해군항공대는 二十八일오전八시 三十분경음 명으로 되엇다 그리고 탑승자는 중위 비행정 (沖縄) 좌세보(佐世保) 부근을 출발한 미대도(美大島)부근을 통과후 야 소식 대위외 六명이다. 【좌세보전화전통시보】 해군 비행정 一기 좌세보진수부에서 접수이래 행위불 비행성의 행방불명과 동시에

一시간 …

이 어서 부두(東部)강계정미소에 들어 가 사무원을 위협하야 二천六十전을 강탈도주하다가 따라오는 순사에게 총질 (高鳳林)과 사무원에게 총상을 입히고 잡힌것이다.

齒醫合格者 四월에시행한 치과 의사시험(齒科醫師試驗) 제二부시험합격 第一部試驗合格자 十一명중 조선인은 다음과같다. 第三五八號 慶尙北道 具 啟喆

都計令實施로 草家撤廢?

◇도시미관상 불량하고 貧窮民들에겐 問題

【함흥】 만二년내로 실현할 함흥의 도시계획은 차차 진행되어 도시미관상에 의하여 불원간 문제되는 것을 엄밀히 하여 총독부에서 할 일인데 이번에는 함흥도시계획인데 …

종래 초가는 불허한다는 …

方峴에火災 一棟四間全燒

【방현】 지난二十七일 오전十一시경 평북 방현시(方峴市)八유재호(劉載鎬)씨댁에서 불이 일어나 때마츰 맹렬히 부는 바람으로 하여 …

反滿共產黨을 大擧滿洲國에

【하르빈 二十八일발동맹】 소련극동정부는 근래 …

風土無視한 指導로 被害만흔改良麥作

═耐寒性이 적은것도 一原因═

考慮될今後指導方針

한랭해가 우심한 맥작에 피해는 농림당국이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오든 소위우량품종이라는 내한성(耐寒性)이 비교적 적은 개량종에 우심하고 또한 당국자가 적극적으로 지도장려하는 개량식경작지에 우심하다고 한다.

그리하야 피해농가에서는 조선의 기후풍토와 또는 농촌의 재남을 하아려치안코 그저 일본내지의 경작법 또는 그지방에 적합한 소위우수품종이라는것을 조선에 그대로 수상하고 잇는 당국자의 종래의 지도방식을 고치지 안흐면 안된다는 반대와 또는 비난이 자못비등하다고 한다.

그러유는 조선은 일본내지에 비하야 비교적 기후가 한랭함으로 아니라 비교적 강구함이 적은곳이므로 기후풍토가 다른일본내지에 적합한 품종이 조선에 적합치안코 또는 그의 경작법도 따라특수조선의 풍미를 가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는것이다.

그의 실례를 든다면 현재 조선에서 당국자가 추장하는 소위 우량종이라는 내한성이 빈약하것은 적근변과같은 동한이 심하며 은 부적당하고 비가 적은 조선에는 비가만흔 일본내지와같이 한에 보리를 심으는 법이 적당치안코 조선재래의 방법대로 고랑에 보리를 심으고 고랑을 좁게하

機上에서爆擊

楊程合流反滿軍에게

【봉천二十八일발동맹】 동변도 (東邊道)에 출몰하는 양정(楊程)합류반만군약 四百은 二十七일밤이래 쌍산자에잇는 만주국경찰대(滿洲國警察隊)를 포위하야 동대는거이 전멸의위기에 빠저잇다는 정보에의하야 二十八일 오전六시봉천(奉天)○○비행대로부터 ○○기○○대가 출동 쌍산자부근에 잠복하고잇는 그들에게대하야 폭격을가하고 동오후五시 봉천(奉天)에 귀환한바 동기의보고에 의

六時間의 激戰에 三十二名이死傷

滿州警察隊와 雙山子서遭遇

程派二百名이突現

【봉천二十八일동맹】 현부부대 사령부(縣部司令部)의 입전에 의하면 二十七일 새벽 환인현 경무국장(寬甸縣警務局長)이 인솔한 만주국경찰부대○○명은 쌍산자(雙山子)부근에서 반만군정(程)파의 二百명과 만나 격전하는 소수의 병력으로 이에 응전한바 격전 六시간에 이를 계주케하엿다 그들의 유기시체는 二十二、부상十、경찰대의 손해는 부상자가 一명이다.

하면 그들의 방은바 손해는 매우 만타고한다.

南大門場商人 運動會에 義捐

▲二百圓 中央物産株式會社

대맥 在來種 二七、六○四、○七七 / 改良種 六○四、○七○

소맥 在來種 二、六六、四五二 / 改良種 二六四、○九○

裸麥 在來種 一四四、一八 / 改良種 一六八、二六六

면 다음과같다고한다.

를 재래종의 경작면적과 대조하 十七萬九千八百八十五정보로서그 수풍인 개량종의 경작면적은三 금번 한랭해가 특히 우심한 우 특히 가 반하는것이다. 고 씨를 만히뿌리도록 하는것이

올림픽籠球에出場할 正選手三君送別會

제十一회국제 올림픽 농구(籠球) 정선수로 피선된연희전문(延禧專門)의 장이진(張利鎭)、 이성구(李性求)、 염은현(廉殷鉉) 三군의 송별회를 二十八일 오후七시부터 명월관(明月館)에서 개최하엿든바 三군의 모교인연희전문의 직원과 각방면의 三十여명 참석하에 정상윤(丁相允)씨의 개회사가잇은후 윤치호(尹致昊)씨의 축사를 비롯하야 운동계, 사회 각방면의 선수소개와 여운형(呂運亨)씨외 윤치호(尹致昊)씨의 축사는 특별한 각오를 준후에 동九시경에 화기만만한가운데 폐회하엿다 그리고 염, 장, 양군은 명二十九일 오후二시五분 임시열차로 동경(東京)으로 출발하리라한다.

▲二十圓 金漢洙

▲十圓 崔東俊、京城製油所、南基協、李昌根、京城製藥商會、崔永洙、同信商會、大昌商會、盧裕成

▲五圓씩 趙世顯、辛德成、安鳳春、朴均植、申三龍、東興成、韓興東、朱昌鉉、崔金榮、瑞生號、安分號、公盛興、和興公、金顯宗、金重振、朴俊浩、金正善、元昌商會

▲三圓씩 平田支店、吉永商店、丁壽鉉、金炳淳、申昌興、金麟元

▲二圓씩 文炳浚▲李泰俊、鄭雲昊、金石根、成樂信文店、朴雲用、尹成台、李興元、金淸淳

▲一圓五十錢 崔宇植

合計金四百三十七圓五十錢也

累計金九百八十八圓五十錢也

明川에發疹病 署長까지病死

散亂된防疫의前線

【화대지국전보】 명천경찰서에 발진티부스가 창궐하야 유치장에잇는 유치인대부분과 동서경관은 물론 각서에서 방역중이든 경관까지 감염되어 공의등과 가치 입원하엿다함은 기보한바와 같거니와 나남(羅南)도립병원에 입원하엿든 명천경찰서장은 이병으로 가료하다가 二十七일 오후○시四분에 그만죽엇다고한다.

그날그날

(陽)四月二十九日(水曜日)
(陰)閏三月九日(辛巳)

日出前 五、四○ 月入後 七、二○
月出前 一二、二六 月入後 一、四一

潮 滿 仁川前 一一、五一 後 一一、四四

思想犯保監法 今般議會의提出決定

【동경전화전통】 사법성(司法省)에서는 오는六十九 특별의회에 사법성 법률안으로서 사상범보호감찰법안(思想犯保護監察法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공산당사건에 연좌하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刑)의 집행을 반은사람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자의 총수가

현재 七千五百명에 달하는 터로 아무런감찰(監察)도 하지안흐면 사상선도의 목적을 달하기 어렵다는것이라고 한다.

오늘의天氣

흐렷다개엿다합니다

陸軍官舍專門盜賊

【회령】 회령읍오봉동(會寧邑五洞) 육군관사(陸軍官舍)만 전문적으로 현금만절취하는괴적一원적을함북명천읍(咸北明川邑)에두고 현주소를 회령서 남방약十리가까운서촌동(西村洞)에 三김태봉(金太鳳)(二五)은 지난二十五일 오후二시경육군관사 근방에서 배회하는것을 당지헌병분대소도특무(小島特務)에게 잡하계포당한 일이 잇엇다 그는 수일전부터 전기육군관사비틀을 타가지고 배일한처부집 내지 새집까지 침입하여서 현금만 절취하야 모조리 유흥에소비하엿다는바 지금까지 육군관사만 습격한것이 약二十여에달하고 관명된 피해액은 천원가량이라한다.

面書記賭博團

【전주】 정읍군 산외면 사무소(井邑郡山外面事務所)의 직원이 정룡(李八東)(三○)외 四명은 지난 三월 十四일부터 二十三일까지 숙직실에서 대대적 도박을한 사실이 이번에야 발각되어 정읍경찰서에서는 五명의 면서기를 검거하고 방금 취조중이라 한다.

待望의羅南上水道 工事準備에着手

【나남】 누보한바와 같이 나남시정으로 읍의 단독경영을 하게되어 그 준비에 분망하든바 최근은 본격적으로 준비중사에 착수하엿다는데 그 경과를 탐문한바에의하면 나북천에서 …링구를 실시하야 집수정(集水井)의 완정 개소를 몇개중인데 현재 나북교 서속 교각(橋脚)으로부터 상류一백四十메틀이되는 개소와 발전소와 나청(羅淸)가도의 중간에 一개소를 실시하야 대조하야 우수한 곳을 선정하리라는데 전자는 지질이 사리(砂利)가 혼잡되어잇는 관계로 홍수때에도 흐린 염려가적어 집수지로써 八메틀의 심도(深度)를 필요한다면 현재의지질로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만일 이곳으로 정한다면 一만四、五천원을 요할 려화지(濾過池)의 설비가 불필요하게 되리라고하며 또 후자는 중간에 지질변화가 만흠으로 집수지로는 수심상 의식되는 점이 만흐리라고 상상되므로 아미 전자를 선대하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의향이라고 하니 최근 회령(會寧)、웅기(雄基)등지에서 상수도문제로 머리를 안는것에 비하면 시민들에게 하등의 불안이 없을 이상적 상수도가 실정되리라고 관계 당국은 말한다.

于溝子反滿軍 朝鮮村襲來、

六戶를두져食糧奪去

【함흥】 함남경찰부입전에의하면 대안 七도구부근에 잠재중이든 토트병란 점산호(占山好)와 북해(北海)의 연합부대 五十여명은 十여명은 지난二十七일 오후十시경 도구 우구자(于溝子)를 습격하고 동지거주의 조선동포가옥등 六호를뒤져 식량기타 다수를 강탈하여가지고 피신용으로 도주하엿다고한다.

◇夜櫻의初夜 (上은燈光에含嬌한꽃봉오리 下는 꽃찾아거를재촉하는사람들)

昌慶苑夜櫻의初夜

바람은 쌀쌀해도 花燈밑엔人跡雜踏

◇◇꽃은아직도필동말동◇◇

入場者五千七百名

해마다 찾어오는 환락(歡樂)의 서울、밤사구라"는 二十八일 저녁에 또다시열렷다.

올해는괴이한 기후가 아직도 따뜻한맛을 풍기지안 …

분이주지못하는 이때에 어여쁜"밤사구라"는 요염히 웃는얼굴로 서울의 청년남녀들 법열(法悅)에 울도록 애썻다.

쌀쌀히 떠돌지어 들어오는 청춘남녀!

동생을 이끌고,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는 학생…

취흥이 무르녹아 호리긴곤(堀) 雅乾坤)의 내세상인양하는 사람

역시 창경원의 "밤사구라"는 이 서울백성을 불러 일으켜야

서울장안의 공무공부에서 부터 거리、거리를 지니 (文俠)로한 사람의 발길은 배우개통안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창경원옥 벗나무밑이며、잔디밭우에는 인파(人波)가 넘칠거리다.

때여 (爆燈)과 잡음(雜音)속에서 절기(節氣)조차 하마 잊고 살아가는 서울사람들의 여기서나마 봄을 맛보러는 가없은 노력인것이다. 이틈에 등장한 한목을 보는곳은 여시 경성(京城)이어서 어제밤부터 전차운전 一백五十四로四정목 어구에서는 여차장、남차장이 밀려드는 노도(怒濤)같은 인파를 정밧속으로 들어넛느라고 경매장(競賣場)앞집이 치럽 목이 터저라고 "어서타요! 앞으로 닥아서세요"를 밤의곡처럼 웨첫다.

그러나 꽃은 아즉도 피지를 안보 방운… 미인의 얼굴과도 같

이 해왔을뿐이다.

초저녁부터 입장한 사람이五千七百二十명에 달하야 작년三천七百五十명에 비하야 약二千명이나 늘어서 첫날의 입장자로서는 근년에 드문성황이엇다.

벚꽃나무밑을 가만 가만히 사람 사람들을 접장하면서 스테지에 이르니 이곳은 일제히 ॥기를 전한다.

해마다 입장자의 흥미를 돋기 위하야 벌려지는 "갓산"레뷰"또는 혼한"요술"、"기술"이 여시 이곳에도 벌려지고 잇다.

구경에 주린관중은 이것이나마 위라 박수를 보내면서 레뷰걸(걸)의 종아리에 흐르는 곡선(曲線)에 황홀 한다. 아즉도 땅에는 습기가 차건만 이만한 환락에도판중은 태연인양 앉어서 정신이 없다.

연못우에 높직히 서잇는 "입루미네숀"의 동물"수정(水晶)"의 동물은 그 고후 그림자를 물우에 던지어 청초(淸楚)한 맛이 흘럿다. 그뒤에서 뿜어올리는 분수(噴水)는 마치 안개가 피는듯 한우에 五색불빛에 물드리어 정히 한개의 정취(情趣)를 도앗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고요히 고요히 잠자는 연못과 함께 음향(音響)을가져 왓다. 이따금 안면(安眠)을 방해 (妨害)받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부조리는 환락에 반항(反抗)한다는듯이 불근불근, 첨버、첨벙 소리를 내는때가 잇엇다.

오오, 자연과 문명의 상극이여! 인류의 환락을 위하야 잠자는 물고기는 가만히 탄식하는듯하였다.

다시금 사람들의 동물원(動物園)편으로 들어보면 길가 어떤집 처마밑에는 "내각"(內閣)이란 간판이 세상의 허무함을 웃는듯이 조화를 잃어버린 그것을 보여주엇다. 마치동원(東園)의 도리(桃李)는 편시춘(片時春)이란것을 말하는듯하엿다. 이허여 멀건"내각"간판을 뒤로 하고 "대포"(大砲)를 걸어논 문앞을지나 동물원에 이르면 이곳은 너무나 고요하다. 저번저번 걸어 가든 사람의 발자취가 잠자는 즘생의 고단한잠을 깨우는듯 이따금 휘장을 가린 철창안에서는 무슨소리가 나왓다.

이곳에도 인류와 동물의 상극이잇다 자연과 문명은 대립된듯이 느껴젓다.

어느듯 창경원 봄은동산을 다 둘앗다.

초일의 정취는 아즉도 서투른 그것이오, 꽃도 반도꽃인 그것이엇다. "밤사구라"의 환락경은 아마도 몇날이 더잇어야 한창일판이다. 이때나 저때나 초일은 역시 한적(閑寂)과 정요(靜寥)가 본격인것을 이곳에도 보여주고잇엇다.(끝)

인 아 환

嬰兒丸

貴重한어린이病에特効한家庭常備灵藥!

자녀는 생산하는이보다 잘 양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학이 진보된지금 아기의 생명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때 아기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

藥價 四十錢

京城府授恩洞三三一

總發賣元 朝鮮商會

振替京城一七八五

나로나로 고급만성 위장약

나로ー

조선에서 가장만은병이 속병이다 …

藥價 五十錢 一圓

淋疾藥界의覇王 トリパリン

인생의 가장고통을주는 림질을 근치하시라

藥價 一圓五十錢 二圓五十錢 五圓

삼용정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補陰補陽強壯新薬

이약은 사람이 생기면서 신통하게 …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日蘇關係의 調整問題

一

[illegible]

二

有田外相은 지난 二十五日의 外務部長 [illegible]

三

그리고 二十七日에 와서는 [illegible]

四

하지마는 兩國當局者가 [illegible]

米國聯合艦隊 威風堂堂南下

파나마運河大攻防戰

[illegible]

蘇聯各地서도 猛演習展開

大規模의 防空、空襲

[illegible]

各重要產業 國營案要綱

社大黨議會對策決定

[東京電話同盟] 社會大衆黨에서는 [illegible]

一、買收의 形式
一、新株式

新裝의 國聯會館에 各國政府寄贈品

[illegible]

歐洲平和維持珍案

히總統을 結婚시켜라

堂堂、英國下院에 提議

◇이든外相에게 答辯을 要求

[倫敦同盟] [illegible]

西藏을 中心으로 英蘇의 抗爭

注目되는 班禪喇麻의 歸趨

[illegible]

內外短信

隕石에 놀래어 留置場身勢

[illegible]

모스크바로 各國代表參集

[illegible]

郞君의뒤를따라 自殺한駝鳥

[illegible]

赤雪

[다보스發同盟] [illegible]

中繼放送

一九三六年의 佛陸軍 【四】

米·포-린·아페어스誌四月號

그러나 이와같은 [illegible]

攻擊 [illegible]

本土 [illegible]

國境 [illegible]

要塞 [illegible]

事實 [illegible]

當時 [illegible]

規模 [illegible]

參謀 [illegible]

必要 [illegible]

戰時 [illegible]

手段 [illegible]

典故甲 (五)

鄭寅普

[illegible]

조선의 일 第二十六

一、敎學典 (四)

[illegible]

漫畫世界

몸부림치는女神

新刊紹介

▲復興文藝 四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 東京市杉並區堀內一丁目一五八 ムサシノ社 振替東京 八二八八〇番

▲月刊野談 五月號 [illegible]

▲創作 第一輯 [illegible]

▲正音 十三號 定價十錢 發行所 京城仁寺洞一五二 朝鮮語學硏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南部版

地方論壇

[illegible]

寒冷、春旱影響으로 麥作被害五萬町步

그中一萬町步는五割以上減收

全北道에서代作策講究

[전주] 동한(冬旱)과 한랭(寒冷)으로 인하야 전북도의 맥작(麥作)에 피해가 불소하리라는 기보한바이어니와 이제 지난三월말 도 농무과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二、三할이상의 감수가 예상되는 경지면적은 五만여정보로 그중에도 피해가 심하야 五할이상의 감수가 예상되는면적만 약一만여정보라한다.

그리고 사군별로 피해가 가장 심한곳은 완주(完州) 남원(南原) 정읍(井邑) 익산(益山) 김제(金堤) 등 대개 평야부에 속하는 六군이라 한다.

작년의 한해(旱害)로 인한 상흔이 아직 사라지지 안흔 전북도농민들에게 또다시 맥작에 이처럼해를 입게되면 그들의 장차 생활이 참히 우려되므로 도 농무과에서는 마령서(馬鈴薯) 등 대작물을 배급하고 대작을 할수잇을곳에는 대두(大豆) 조(粟) 등을 빨리심도록 하는등 대책을 강구중이라 한다.

慶南에도降雨繼續 麥作에被害不尠

흉풍을 좌우하는 최근의천후

洛江附近에는發穗開始

[부산] 경남지방의 보리농사는 작년의 혹한으로 막대한피해를입어 금춘의 일기여하로 흉풍을좌우하게되엇는데 최근화접에 간일한 강우로 보리에 배우유리하다고하더니 그만 비도정도가넘처 지난二十七일에 또비가쏘다저 소생하는보리에 큰해를 입히게되엇다고 一반농가에서는 배우를 걱정중이다.

密陽地方도 凶麥은凶作難免

[밀양] 경남밀양(密陽)지방에는 초봄(初春)부터는 수렵동안은 도모지 비가오지아니하야 一반농작물에 피해가 적지아니하엿든중이달부터는 비가넘우자주오기시작하야 一二일식 사이로 비가너무만이나리는등 더욱기괴한것은 상납미다비가 나리게된것이 지난二十七일까지 五회나되므로 밀양시민들은 상품이 매매되지아니하야 그게서정이며 쪽파리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보통자는 살수없다고 인심이 불안한데 농가에는 논에심어노흔보리는 모다씨어바리겟다고 자기어려워하는중이라 한다.

沃溝에도降雨 麥作에影響

[군산] 전북옥구(全北沃溝)지방에 잇어는 작물이래 계속된 폭한으로인하여 그간 맥작(麥作)에 입은바 피해가막대하엿는데 요사이와서는 비가넘우도 자조와 파종시에 다량임으로 그모작(二毛作)인 논에 경작한보리에잇어 [illegible]다는것보다도 해상이낭나하여 일반농가에서는 소동기를 넘더한다고한다.

茂朱서小兒失踪

[무주] 전북 무주군 무주면 당산리(茂朱面堂山里)에 거주하는이고만개(高萬介)(■)는 극빈한 생활을 하여오든중 어린사식을곤 감수없어서 지난二十五일 아침에 무주면 읍내리(茂朱面邑內里) 이영덕(李永德)의 집에 일을하러가면서 상납 재순(在舜)(×)이를 다리고가서 쌀구뢰를 구해서불리여보낸바 그의일아침까지 재순이가 집에도 안가고 도모지 행방불명이되어버려서 부모들은 대경실색하야 탐사중이라 한다.

大麥의發穗―洛江附近의昨今

晉州記者團 定期總會開催

[진주] 진주 기자단(晉州記者團)에서는 지난二十六일 오후六시 남강정(南江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진주기자단 주최로 오는 五월三일 오후一시 진주교육문제 좌담회(教育問題座談會)를 각계인사를 초청하야 진주읍사무소누상에서개최하기로결정하고 계속하야 기자단 역원을 개선하엿는데 신임역원은 다음과 같다.

▲常務幹事 [illegible] ▲幹事 [illegible]

學級增設도紅爐點雪 收容率不過四割七分

겨우昨年보다 一割五分減少

全北初等校入學狀況

[전주] 최근 전북도의 집계에 의하면 도내에 금년도로 一면一교제가 완료되어 수十학급이 증설되엇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용자는 一만九백十九명으로 전지원자 二만三천여명의 약四할七분에 불과한것을 알게되엇다한다 작년도에는 六할二분이나 수용하엿음에 불구하고 금년에 一할五분이나 수용률이 저하된것으로보아 매년의 학령증가가 수용자수의 증가에비하야 얼마나 소원한가를 알수잇다하며 그중에도 전주 군산(群山)등 대도시에서는 지원자를 七할이상 수용하엿음에 불구하고 금산(錦山) 무주(茂朱) 장수(長水) 남원(南原) 순창(淳昌) 등 산간지방은 수용률이 三할내지四할에 불과하다고 한다.

卅名은無事生還 四名은溺死로判明

蔚山遭難漁父의後聞

[부산] 지난廿四일 오후四시에 울산군 온산면(蔚山郡溫山面) 앞바다에 출어햇던 어선五척이 돌연이 습래한 강력한 폭풍을 맛나 어부 三十四명중 十四명은 행방불명되엇다 함은 기보한바인데 그후풍파가 지나가고 조난당한 살어나오고 그중二十명은 행방이 불명되엇다 하든바 지난廿六일에 대부분이 생환하엿는데 그중에 동면 법도리(法島里) [illegible] 第五고선판(高善判)(■) 장용달(張龍達)(■)등 四명이 익사한것으로 판명되어 못하지아니한 수국고혼이되어 버리엇는데 장용달의 시체는 찾지못하엿다고 한다.

群山驛을떠나는沃溝移民

逆境에處한 四男妹에同情

본보를보고 원산서동정금

[통영] 지난 二월二十三일 본보에 보도한바와같이 어린것들을 다리고 어가는 도중에 남편이 불의에도 경찰에 잡혀간후 절망지 어린것들 五남매를 다리고 무꼬 남편이 나오기를 경찰서 문전에서 기다리다 기한에 견디지못하야 四남매만은 그대로 남겨두고 젓먹이 어린것을 업은채 투강자살을 한 눈물겨운 참극이 잇은후 경찰에 잡혀갓든 그의남편 여수군 여수읍 봉산리(鳳山里)정계조(鄭桂祚)(■)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밧고 석방되어 어린것들 어머니의 자취를 [illegible] 잇든 四남매 어린것들을 찾아 다시 살길을 찾어 어데로인지 떠낫는바 당시 본보기사를 읽고 동정하야 三월二十五일 원산(元山)부내 임생(林生)이라고 익명한 애독자로부터 一금五원과 전기 불상한 어린四남매의 구제금에 보태여달나는 간곡한 편지와 가치 본보 통영지국(統營支局)에 부송되어 왓으므로 그간 본보지국에서는 행방을 조사하여보왓으나 알어볼길이 없든바 우연이도 지난二十四일 길야정(吉野町)산밋일에 셋방을 얻어 [illegible] 하야가지고 그날 [illegible]

浦項에도移民列車 五百餘名을輸送

눈에띠우는 남부와 박아지

血淚뿌리며서로離別

[포항] 생의도태를 당하고 살길을찾어 만주로 떠나는 경북의 영일(迎日)、영덕(盈德)、청송(靑松)、영양(英陽) 등 五군의 五백여명을 실은 이민열차는 지난二十六일 오후五시五十분 포항역(浦項驛)을 출발하엿다한다.

그때나는 사람들은 남부와의복에 허술한 봇다리에 박아지를 단것을 지고이고 어린자녀들을 혹은업고 손목을이끌고 혹은 늙은 부모들이 뒤를따르고 정든고향과 친척 친지를 버리고 [illegible] 이별하는 비애에싸여 [illegible]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금치못하게하엿다한다.

春雨瀟瀟中 軍威서도四十名

[군위] 경북 군위군내(軍威郡內)에서도 만주로가는 이민군이 四十여명이나 잇엇는데 그들은 지난二十七일 비가 몹시오는 가운데 [illegible] 는데도 불구하고 정깁흔 고토를 등지고 군위면(軍威面) 四호 二十二명 효령면(孝令面) 三호十八명 합四十명이 자동차에 실리워서 대구(大邱)로 떠나갓다고 한다.

金堤서도十五名

[김제] 전북 김제군(金堤郡)에서는 금번 경기록당한 오늘날 하여 만十五명을 전북도당국의 알선으로 만포선(滿浦線)철도공사장으로 지난二十七일 오후三시十五분에 눈물을 흘리고 호남선김제역(金堤驛)을 출발하게되엇는데 이들이 출발하든날 김제역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엇엇다고 한다.

益山서도百名 지난二十五일에출발

[이리] 비교적 생활이 넉넉하다는 전북익산(益山)군민중에도 대세를거역치못하야 남쪽의 따뜻한 고토를등지고 북쪽만주벌판으로쫏겨가는이주민이전군十八[illegible]에서 선발되여 二十五호 백二十七가족이 지난二十五일 저녁 이리역발열차로 영구(營口)로 향하엿다고한다.

地價騰貴憑藉코 地料를倍以上引上

仁川松林里一番地數百住民에 不應하면撤去를命令

[인천] 인천부송림리(仁川府松林里) 一번지 인부하원(仁富荷院)을 위시로한 근수백호 주민은 근일 「지가가 등귀하엿으니 종전의 지료매평五전을 十전을 합데니 만약이에 불응하면 철거하라」는 선고를 받어 전전긍긍하는 一방 인천서(仁川署)에 탄원할 라는데 그내용인즉 원대동양조조합(大東釀造組合)의 소유토지이든것을 금번동주식회사(農工株式會社)가 매입하고는 그와같은가혹한처치를한것이라고한다.

薪炭價가倍騰

薪炭場을移轉하면

仲介業者府에陳情

[인천] 인천의 현재신탄부두(薪炭埠頭)는 제二축항으로 인하야 이전하게되어 인천부(仁川府)에서도 각처로그장소를 물색중인바 부내신화수리(新花水里)해안이 제一유망시되고 잇는형편인데 이와같이 신탄부두를 신화수리해안으로 이전하게되면 인천의신탄주요공급지는 충남서산(瑞山) 당진(唐津)방면이므로 그신탄선이 부두에 닷케까지에 약二배의시일을 요하게되며 이에따라 인천부내의 신탄가는 배에의고가를 보게될것이라하야 신탄중개업자들이 인천부에 진정을 준비중이라한다.

中國阿片窟襲擊 六名을打盡

[인천] 인천서(仁川署)에서는 지난二十四일 부내 중국인가를 습격하고 중국인 六명을 一망타진하엿는데 그들은 산동성(山東省)에 본적을둔 부내 지나정(支那町)一번지 유운룡(劉雲■)(■)외 四명으로 그들은 아편밀매 밀흡자로 「비즌간에 너흔」 [illegible] 다수를 압수코 지금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鐵路에이슬된少女

機械에치어죽은職工

봄을 등지고 떠나간 그들

大邱에一日兩件慘事

[대구] 배화가 바야흐로 봄다운봄을 자랑하는 명랑한 봄을 등지고 주검의 나라로 떠나간 인간비극의부탁이 대구부에서 생겻다.

廿六일 오전九시五十분경 부내 칠성정(七星町) 대장제재소(大■製材所)에서는 신암동(新岩洞)一〇五번지에사는 구지서(具祉書)(■)의 二남 노이(■伊)(■)란 소년이 제재하는 직공으로 종업에 오르든 불행히 기계에 휩쓸려 전신이 분쇄되여 현장에 즉사하엿다고 한다.

◇廿六일 오전九시五十분경 부외 신암동(新岩洞)철도 피차점에서는 동동一、一九五번지 이우만(李又萬)(■)의장녀 태순(泰順)(■)이가 때마츰 통과하는 화물열차에 치어 무참히 늑사되엿다고한다.

慶北鑛山서 兩鑛夫慘死

일하다가 항내에 떠러저서

奉化와盈德의일

[대구] 一확천금의 금광열이 황금광시대를 연출하는 가운데 잇다고잇대소자본벌이 광업을 경위하는경북도내에서는 황금광의 그리는황주보다는 너무도 현실적인생활문제에 전작되여 하로에몇十전의노임으로 생명을 다라매고일하다가 불의의 주검을당한노동자가 廿四일에 두건이나 생겻다.

경북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금정광산(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金井鑛山)에서는 廿四일 오후세시 [illegible]에사는 전재성(全載成)(■)이 광구에서일하다가 발을 잘못드디여서 수十척되는 항내로 떠러저 즉사하엿다고 한다.

그리고 경북영덕군 지품면오천리(知品面梧川里)의 금광업회사소유의 광산에서는 廿四일오전五시경 광부들이 거처하는임시로지은 판장집에 [illegible] 절벽우의 바우가 무너저서 판장집 방안으로 뭐어들어와서 방안에 자고잇든 봉화군춘양면의양리(奉化郡春陽面義陽里)에본적을둔 이우만(李又萬)(■)이가바우에치어죽엇다고한다.

金堤郡災民數十名流離

[김제] 전북 김제군은 작년 한발에서도 더욱 극심하엿다함은 누보한바이어니와 요사이 춘궁기를 당하야 그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할길조차 바이없어 어린자녀를 더리고 혹은 북만 혹은 현해탄을 건너 정처없이 정든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하로사이에도 수十명씩이나 된다하며 여러가지사정으로 그도 못할사람들은 광부생활로 전업들하고잇는 상태라 한다.

姦通한안해 憤김에打殺

十七년간 동거하다가 변심

全州法院서三年求刑

[전주] 十七년동안이나 가치지내든안해가 최근에와서 마음이변하야 다른사나이와 불의의관계를 맺은것을 알게되자 분김에 그안해를 때려죽이고 법정에 슨 남편이잇다.

그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完州郡所陽面新元里)의 [illegible]의 안해 손점례(孫點禮)(■)와는 十七년전부터 가치살어오든바 최근에와서 한동리사는 유송길(柳松吉)(■)과 불의의 관계가잇다는것을 알고는 [illegible] 작년十二월廿九일 전기 유송길이가 자기집에서 자고나오는것을보고 그이튼날 안해를 방망이로 따려 약一주일만에 죽게하엿든것으로 상해치사(傷害致死)로 전주법원에 기소되엇든바 지난廿五일 검사로부터 三년의 구형을 받엇다한다.

大躍進의前提로 義城市區改正

간선철도실현에딸어

[의성] 대의성의 경북의성군(義城郡)은지난四월초순부터 一만八천원으로 읍내 [illegible]천(■川)과 四천원으로 쌍시구(市區)계수공사를 시작하엿다고한다. 또구안선(邱安線)二등도로를 경유시가로 관통케하는데 이미설계를 맛치고 구봉산작곡(九峯山■■) [illegible] 의성교가설(義城橋)을 一만八천원、[illegible]을 三만五천원、[illegible] 一만七천원을 타협하려 지난二十[illegible]일에 전(田)군수 유(柳)도의원 오(吳)의성면장이 상도하야 [illegible] 한다. 이밖에 지난소화七년 二월十五일 사무정지를 의성법원지청(義城法院支廳)도 [illegible] 법원지국(法院支局) [illegible] 예지장이 [illegible]바 오는九월이나 명년四월에는 복활이될터이라고 하며 금번 [illegible] 회(■■)에 제출한다는 신간선(新幹線)철도가 실현된다면 [illegible] 三四년후이면 인구의 농산 임산 약산(農産林産藥産)이 집중할것과 부산(釜山)과 직접상거래를 할수잇어 상업도시가 되리라고 한다.

會合

◎[illegible] 第[illegible]回[illegible] 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第十七回定期總會 十九日 [illegible]公會堂內에서 開催

◎[illegible] 第九回定期總會 二十九日 [illegible]公會堂에서 開催

消息

◎安東金某氏(本社■■支局長)夫人金■■氏去二十五日[illegible]病院에서 別世

[illegible]

益山郡初等教育 擴充計劃立案

十年間百五學級增設키로

臨時費財源蓄積圖謀

[이리] 전북익산(益山)군하초등교육상황은 소위 一면一교제로 실현을 보앗다 할지라도 그수용력은 三분의一에도 미달하야 변내로 학교증설 급 학급증가를 운동이 각면마다 맹렬하엿고 더욱이 [illegible]에 당하여서는 각 지방 [illegible] 각교마다 처음한 경험을 정하여잇든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리(裡里)보통학교와 같은데에서는 지방인사 [illegible]으로 하급교사증의 급속 실현의 평화를를 개시하야 빈번이 군도당국에 절충에 절충을 거듭하는 상태중이라 한다.

이에 김진(金■)익산군수는 [illegible]바 잇음인지 관하읍면장을 지난二十三일 이리보통강당으로소집하고 초등교육 보급확충 계획의 실시에 따르는 임시비 재원축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엿다 하나 그내용은 극비에 부치고 말치 안으므로 자세히 알수없으나 대개 명十二년도 부터는 제二차확충계획실시에 들어갈터인데 이에요하는 경비중 경영비는 물론국고보조도는 학교비부담금 외 중공으로서 [illegible] 임시비에잇어서는 그一부를 도비의조성에 의하는외에 주로지방인의부담으로써 보충케될 예정으로서 이확충계획의 철저한 진행을 기하는 一면、지방민의 급격한부담의 중고를피키위하야서는 一반경리와 양호한시기를타서 미리소요의 임시비의 재원축적을 기도하는것이 극히 긴급사항이라하야 각기 지방의실정에 응하여 입안한것으로 읍면세부가세 一호평균액이상을 납부하는자에대하야 호별세의 례에준하는것이라는 방침하에 금년도 하반기분부터 착수하기로되엿으나 현재전군 八五학급을 一백五학급을 증가하야 一백九十학급으로 할것은 확정되어 착착 진행의도에 취하엿다고 한다.

南朝鮮弓術大會
◇時日　五月五日(舊閏三月十五日)
◇場所　咸安面城洞射亭
◇賞品　自一等至六等　女射員自一等至三等
◇主催　咸安鹽亭射友會
◇後援　東亞、朝鮮、中央三支局

第八回 水原市民大運動會
◇時日　五月十日午前九時
◇場所　華城學院運動場
◇申請期　五月五日午後四時까지
◇主催　水原體育會
◇後援　水原紀者團　水原■■協會　水原布木商組合　水原■■協會

蝀龍窟探勝團募集
◇時日　五月七、八日兩日間
◇會費　拾圓也(車費及宿泊料)
◇申請期日　五月三日까지(要會費先納)
◇主催　東亞日報社■■支局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汚穢物處置問題

方魚 一記者

五千人口를 包容하고 나날이 發展하고잇는 우리方魚津의 保健을 爲하야서는 반드시 위생시설이 完備되어야만 할것인데 그것이부도 不完全하야 市民全體가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衛生이란 人間生活에 얼마나 重大關係인가는 새삼스럽게 重言復言할 必要조차 업다. 더구나 만흔사람이 集居하야 都市的生活을 하는 곳에는 衛生에對하야 特別한 關心을 가저야할것도 또한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기에 衛生施設이 잇어서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할 것이다.

[illegible] 우리方魚津은 [illegible] 어떠한가? 너무나 寒心하다. 아니 住民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汚穢物까지도 끼치게된다. 우선 市街地를 부어노니 惡臭가 振動하야 마치 便所에나 들어가는것같은 느낌이 잇으며 골목골목에다 재(灰)를 싸어두고 汚物을 부어서 바람만 좀 불어도 四方으로 날려 通行人의 呼吸을 괴롭게하니 이 어찌 數千住民이 사는 都市라고 할것이냐? 그러면 그 對策은 어떠할것인가? 勿論 一般住民이 가저서 스스로 改善하여야 할것은 明白한 必要도 없는바이지마는 當局으로서도 一層 더 積極的으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陰冷氣溫旬餘繼續

咸南農形도 憂慮

파종기가 二주일이나 늣어지

蔬菜類發芽도 萎縮

怪天候의 四月

[함흥] 이번四월부터 심상치 안흔 한랭의 기후로 봄기운이 어려워 벌서 田畑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저온의 관계로 [illegible] 산간지대에는 시방까지 눈이나리고 평지대에서도 파종기는 전처로 늦어지게되며 [illegible] 이러한 기후가 계속되어 농사에 영향이 막대할것을 예상하고 벌서부터 불안의 가슴을 안고잇는 상태이라고 하며 평지대에서도 기후가 맞지 안허 一반적으로 파종이 늦어지고 명천한날씨가 없이 장기간 음울한기후만 계속되어모든 파종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년처럼 발아한 소채류도 그성장발육이 불량하다고 한다.

더구나 연三년간 냉해로말미암아 흉작(凶作)까지 당하여버리고 당국에서 배부하는 벼의 한종자들만이 어서 한기간 [illegible] 에서는 신년도에 있어서 사하교의 시설과 계획등을 조선하야 농촌진흥운동과 유기적관련으로 [illegible]

各方面에 再燃

咸ㅅ府營說

[청진] 청진부회(淸津府會)에 부내 뻐스를(咸北自動車會社經營) 부영으로하자는 의견이 처로 조사위원五씨를 선정하야 방금 철저히 조사중인데 그에상응하야 부내중요방면과 一반사용자층에서는 해회사의 청영방침이 불친절함에 여론은 一층재연되고잇다.

◇車臺數不足
◇車體不備不潔
◇區域不均
◇料金高率
◇乘客에게不親切

이상 五개조를 열거하야 一반에게 심한 자격을 주는동시에 해회사측에대한 비난이 점점 놉아간다고 한다.

橋梁改築、新築費만

六百四十萬圓

금후 廿년간이라야 전부완성

◇咸南道의最近調査

[함흥] 함남도토목당국의 최근조사에의하면 금후 도내각처교량의 개량을 요할개소가 七백五十개소나되어 이소요경비만 四백九十만원에 달한다고하며 또새로가설할개소도 백七十五개소되어 이경비가 백五十만원을 요할것으로 전후를합하야 九백二十五개소에 六백四十만원은 소요될것이라고 하는바 이를실현하고저하면 적어도금후二十년은 잇어야 될것이라고한다.

夜學爲해盡力

三先生表彰

[강동] 평남송호리(松湖里)청년회에서는 거금 六、七년전부터 야학회를 설립되어 그간백여명 야하생을 주야 하로같이 교육시키는 야학선생 오문성(吳文星)김고... 高三선생과 청년회장 김수용(金濟用)씨와 총무 김정태(金貞泰)씨에게 만흔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야 지난 二十四일 오후八시에당지 사무에 본수합에 도불구하고 七十명이상이 애청석과 유지다는데 오순성(吳文星)선생은 자기사무에 본수합에도 불구하고 노인야학생(老人夜學生)입은 과거년동안을 하로같이 매일밤출석하였다한다.

咸北送電線 清、吉變電所

虛川江 水電一期工事

十一月에 完成

堰提、發電所等二期工事는今冬

現地의 實測調査에 着手

[함흥] 三、四개년계획으로 서부 대동되어 이천정선을 하여 오른 바 [illegible] 허천강 수전의 제一기 공사로 함경수전회사(咸鏡水電會社)에 인가되엇으므로 동회사에서는 위선 저수지용지로 一천만평의 토지를 매수하고 전후三회로나누어 총공사비 七천만원이란 거액을 던저 금년부터 실측에 착수하기로 되엇다함은 일즉이 본보를 통하야 보도된바이어니와 제一기공사에 속하는 함북송전선(咸北送電線)一부공사와 청진변전소(淸津變電所)와 길주(吉州)변전소 一부건축공사에 착수하야 오는十一월 말안으로 공사를 마칠터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二기공사인 어파리(魚坡里)언제공사와 제一발전소건설공사는 금년十一월부터는 착수하야 차차 공사를 급히 할터이라고 한다.

元山救世病院內部擴充

[원산] 조선에 아직도 현대문명이 수입되기이전인 三十년전에 설치된 원산구세병원(元山救世病院)은 三十여년을 하로같이 계속하여내려와서 원산의료계에 유一한존재가되어 잇는바 동병원에서는 지난三十일경부터 一만五천원예산으로 내부수리공사와 기타 치료기계등 그대로 좀더 대중의 보건을 계획이라고 한다.

鏡城郡內初等學校長會議

[나남] 경성군(鏡城郡)

延吉慶安街에일어난

强盜團打盡

◇가순사로꾸미고 범행

[용정] 시내 모종하교에생까지 가입한 갑노국一파이 연출되자 가순사三명의 강도단은 그만 경찰망에 걸린 사실이 잇다.

어는 연길현 경안향 홍신동 김명입(延吉縣 慶安鄕 興新洞 金乘)으로 지난 三월 二十一일에 부근에 거수하는 장아방(張亞方)이가 용정시장에서 소한머리를 七十五원에 판매하는것을 보고서 도적질 생각으로 친처되는 용정시내제四구 二十一동五호에 거수하는 장동칠(張東七)과 상의하고 [illegible] 一년생상보 (...)가 원입된 체신국집배인 신영조(辛英祚)방에 유수함을 기화로하야 동인을 유혹하야 집배인의 외투를 가서 나가 三인이 공모하고 동야十二시에 홍신동 장하순의 방에 차서 가서 자기들은 경찰관인데 공비검거차 출장하엿다 하면서 가택을 수사하면서 장을 불러다가 네가 오늘 소판돈을 공비에게 지불하려하는 사실을 탐지하였는데 그돈을 어떠케 하엿느냐 하므로 장은 위신놀라서 현금六十九원을 내어보이니 가순사三명은 六원이 족하다는 구실로 이는 확실히 공급압수 하는터이니 범인연행한사비와 내통함이 분명하다는 [illegible] 판에 출두하라 하고 공탁을 강탈하여 달아나 二十七일에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인치취조한후 지난 二十三일에 一건서류와 함께 송국되엇다 한다.

生阿片密輸團

六만五백름메압수

[신의주] 二十三일에 신의주경찰서 형사대수명은 부내미륵동(彌勒洞)부처봉부(...)가 집안에 가수어둔 생아편(...)六만五백름메 시가三천원을 압수하는동시에 범인一명 의주군 위화면 상단동 義州郡 威化面上端洞 二九三 최봉신(崔鳳信)(...)등四명을 체포하야 목하 엄중취조중인데 이들은 철산으로부터 비밀재배의생아편을 가저다가 안동에 밀수하고 기회를 기다리든 중이엇든 것이다.

工業景氣압두고

建築申請遝至

전년의 주택난 一소되저

羅南邑의 最近傾向

[나남] 생산도시로써 약진하는 각도시에서 증가되는 건축을 에 비한다면 말성될것은 아니겟지만 고정적으로 정형된 나남(羅南)으로서는 닥처오는 공사경기를 예상하고 매일 三건이상의 건축신청이 잇는것은 나남으로서는 예년에 보지못할 형상으로 비록 점진적 발전이나마 대단히 한가 운 소식의 한가지인데 전년의 총계 「백二十여건에 비하면 一월부터 四월十五일까지의 건축청원이 벌서 一백六건을 돌파하엿다고하며 건축의 리유를보면 대개가 전년에 주택난으로 고생한것을 완화하려는것이며 따라서 금후의 경기를 상상하고 점포의 신축등 이라고 한다.

虛川江 水電工事앞서

端豐線鐵道를急設

산간지대의 화물직통을 기도

廣、狹軌와 主體會社는未定

[함흥] 七천만원이란 방대한 공사비를 던저 二十二만五천 키로와트의 수력전기를 발전케하야 함북도내의 동화 동력을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간도(間島)만주방면에까지 송전을 하고저하는 장진강수전회사(長津江水電會社)의 허천강수전(虛川江水電)은 七키로 공사기를 나누어 벌서 제一기공사에 속하는 함북송전선과 청진(淸津) 길주(吉州) 변전소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야 오는 十一월까지에 준공할 예정으로 제二기공사는 금년 가을부터라도 착수하고저 모든 준비를 가추고 잇다 한다.

그런데 이 수전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교통이 불편한 풍산군내와 단천(端川)과의 사이에 화물을 수송할 철도를 부설하지 안흘수 없는것으로 이 철도를 장진강수전회사에다 직접 부설케할런지 그 자매회사인 신흥(新興)철도로 하여금 부설게 하려는지 그러치 안흐면 지방유력자를 망라하야 새로 회사를 조직하게 하고 부설케 하려는지 아직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잇으므로 광궤(廣軌)가 될것인지 협궤(狹軌)가 될것인지 이는 더구나 알수없는것으로 불원에 철도공사가 시작될 것이나 당국은 여러가지로 연구중이라고한다.

그러므로 수전공사는 이철도가 완성되는대로 착수할것이라고 한다.

내地方 当面問題

江原 洪川篇

貞淑女校復興運動

홍천읍에 잇는 정숙여학교는 三十년이란 장구한 력사를 가진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수천명에 인재를 길러낸 원이다. 명치四十一년에 고 이규섭(李圭燮)씨와 뜻잇는 이어 아동九명을 모아 자기집 사랑(舍廊)에서 가르키것이 시초가되어 점점 확장되어 명치四十三년 선교부에서 인수하야 교사를 신축하고 대정二년지정교(指定校)로인가되어 동十四년에六년제까지실현된이래 무명퇴치운동에 한현저으로를 발휘하여 오든 중 작년도에 선교부에 재원이부족되어 연보조 五백원밖에는 할수없다하야 일시는 존폐에 문제까지잇엇으나 양이씨(李氏)의 특지로 연四백원 보조하야 근근히 유지는 되어오는중이나 현재 교사 二인과 생도가겨우 六十명밖에는 아니된다고 한다. 작년도에는 신입생 모집도못하엿으며 금년도에는 모집예정에 또다시 비보가드러왓으니 선교부의 보조금五백원을 금년도까지만 주겟다고 하는것이다.

이위경(危境)에처한 우리의 기관을 홍천인사는 묵시하려는가 실로 사회에 중대 문제이다. 매우 애석은점차로 높아가는데 주설한 못하나마 단하나인 기관을 페지시키려는가 홍천읍에는 인구三백여명인데 공보교와 합하야 백명밖에 수용못하니 남아지 아동들에 갈곳은어디메뇨. 장래가 암담한 정축여교를 부흥시키는것이 홍천인사의 급선무인줄로 생각하는 바이다. 신문에도 늘 보도되는바와같은 하원에 사재(私財)를 기우리는 독지가가 우리홍천에도 만히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바이다.

公設運動場問題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열은 경향간을 물론하고 치열하야 홍천지방도 근래에와서 더욱 왕성하게 되엇다. 그리하야 청년층에서는 자못 운동에 열중하야 五년전에 운동 애호인들이 체육구락부를 조직하야 각부를두고 회원 백여명을 모집하야 체육사업에 힘써오며 매년 축구 정구 등 구 빙상 각종목에 경기대회를 六七차나 개최하야 권근 타군에서도 만히 참가하며 원정도 수차씩 가는중 성적도 매우 우량하다 한다. 더구나 축구로는 도내에서 우수하며 매우 열심을 다하나 큰문제는 광활한 운동장이 없는것이다. 현재 공보교 운동장을 빌리어 사용하나 시일에 제한을 받으며 더구나 협착하야 기술도 발휘할수가 없으며 기능도 숙달할수가 없다한다. 작년 신임 군수가 스포ー츠맨 으로서 처음으로 체육협회를 조직하야 제 一회 각종 경기대회를 열엇으며 앞으로도 만흔 장려를 할터이라한즉 반가운일이나 제一 느끼는바가 운동장 문제이다. 더구나 시민운동회는 강변모래사장에서 뛰할터이니 아모 보람이없이된다. 군당국에 일언하노니사회와 협력하야 엉정좋내여 기어히 급속 실현토록하기를 바라는바이다. 체육구락부와 체육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경기대회가 十여차이상이되니 불가불 공설운동장을 설치하여야 될것이다. 홍천읍은 급속도로 발전하야 도시의 면목을유지하야 한다. 공설운동장이 없다하는 것이 수치이아니될수없다. 수만 흔 청소년군에게 운동장을주어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가질수잇다. 운동에필요한 구구히 쓸필요가 없으니 이와같은 중대문제는 사회에서 처단하여 주어야되며 더구나 군당국에서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一설로는 공보교운동장을 더넓게하야 일반에게공개할려고 계획중이라하나 그 비용에 조금만 더보태면 공설운동장을 훌륭히 설치할것이 아닌가. 이계획도 조흐나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이만타. 첫재로 생도 수업시간에 연습기타 경기대회를 개최치못할터이니 아모 보람이없이된다. (끝)

檢查不合格의 穀物

實로 三十餘貨車

◇곡물 강제검사가 나흔 결과

穀港鎭南浦에 重大問題

[진남포] 작년 가을부터 실행되어 잇는 미곡자치관리법안 정조강제검사(米穀自治管理法案 正租强制檢查)로 인하야 곡항 진남포(穀港鎭南浦)는 그 영향으로 곡물 화가 격감되어 一반 곡물 업자들의 눈에게 빛이는 형황은 말할수 없게 심각하여 잇다는것은 누차 보도하엿거니와 그 정조강제검사제 실시이후로부터 곡물검사소 에서는 지방산지(産地)에다가 출장소를 설치하고 정조를 一단 검사를 한후 진남포에 회착(回着)시켜다 시검사소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잇는데 근일에 지방출장소서 검사에 합격된 곡물이 진남포곡물검사소검사에 불합격으로 떠러저 잇는 곡수가 실로 약 三十화차에 달하고 잇어 진남포 개항이래 보지못하든 현상인바 이것으로 인하야 파산의 지경에 달한곡물업자도 수차에 달한다는데 어러케 지방의 검사에 합격되고 검사소의 재검사에 불합격으로 그손해와 또한 경제적 타격은 말할수없게되어 잇는바 이 강제검사의 여파와검사소의재검사를가혹히실행하는것은 진남포곡물계의 중대문제로 본다고 한다.

府議員交替하야

先進都市視察

[원산] 「대원산」(大元山)건설을표로 원산부(元山府)에서는 금년도 명년도 기한으로 부회의원十五명씩을 조선내와 일본내지 선진도시에 파견하야

一、方面委員制度及 社會事業의 狀況
二、掃除其他保健衛生에關한施設狀況
三、特別營業稅、雜種稅、特別稅及手數料徵收에關한和賦狀況
四、副業産業施設狀況
五、決議機關 府執行機關의 協調
六、道路其他各種道路의 現狀及此에對한 各種方針計劃
七、市街地計劃、都市計劃法適用地의實況等

을 시찰시켜 좀더 원산건설을위한 전족진시키리라는데 五월중에 일본내지에 약十四일간 조선내는약八일간에 정하고 지금 준비중에잇는데 금번인원은 다음과같다.

一圓滯納金에

競賣하려다體刑

용서못할세무고원의행동

元山支廳에서公判

[원산] 세무서(稅務署)고원의 직권을이용하야 동포에게 이익을 주려고 체납금 一원五전으로 토지를경매시키려다가 법의 제단을 받게된 용서못할 직권남용사건이 二十五일 원산지청(元山支廳)에서 공판되엇다.

이제 자세한내용을 들어 본다면 함남 장진군동하면 어수리(長津郡東下面於水里) 김경호(金京浩)소유인 강원도 통천군 벽양면 향천리(通川郡碧養面香泉里)五九답 一천백六十八평의 지세 一원五전이 체납되어 경매를하게되엇는데 고성세무서(高城稅務署)고원 장우익(張于翼)이 해토지를탐내어 자기처의 아버지 이원순(李元淳)에 一원五전 기타비용된것하야 三원여를가지고와서 경매수속이 완료되엇으나 범서 경매해제를 부탁하엿으나 만일해제를 하려면 보증금 백원을 내야한다는 구실로 해토지를경매키로 하바 이에 전기 김경호는 김남형을 상대로 직권남용에대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데 이로인하야 김남형은 직권남용죄로 지난 二十五일 징역六개월의 형을받아 집행유예二개년으로되엇다고 한다.

咸南端川郡中心

怪牛疫이猖獗!

원인미상、매일十여두씩 죽어

飼育農家에선不安中

[함흥] 최근 함남 단천군하다 양화면(端川郡何多面 陽化里)와 복귀면 다보리(福貴面多寶里)지방에는 원인도모를 괴병이 유행하야 七、八두의 죽우가 매사하야 매일 잇어 동지방의 농가에서는 전염이낭패하야 어 찌를 경계하고 잇다 한다.

이 괴병은 단천에만 국한된 지방으로 매년 연월 하순경부터 六월 하순까지 발생하는것으로총독부 수의연구조소(獸疫血淸製造所)에서도 여러가지로 연구한 바이엇으나 아직 그 병원은 알수없는것으로 동병의 증상은 최초 목이 속으러지고 전신에 퍼가더 지고는 즉시 폐사하게 되는 가축병으로 작년동에만 어병으로 폐사한 소가 九十九두에 달하는데 고하는 바로 예방도 없는 이 병은 우공(牛公)에 사람한고흥구경 하야 농가에 다대한손실을 주게 되는터이라고 하야 농가에서는 안에 싸혀 잇다 한다.

組合金橫領

理髮組合長이

[신의주] 신의주부 (新義州府) 유하계고정 부내상공정(常盤町)九의七 홍순철(洪淳哲)은 소화九년九월이래 신의주이발업조합장으로 잇으면서 장부를파기한후 조합금 三백七十원을 횡령하여 비엇든것이 근일발각되어 二十五일 신의주경찰서에 구인되엇다.

계집빼앗으려고

殺人한老乞人

◇피해자는 젊은거지◇

寧邊鳳山面에생긴일

[신의주] 처정관계로 밀어감 독심과 무서운 살인국——二十四일 정주 영변군 봉산면 거산동 체목장(寧邊郡 鳳山面 巨山洞)에서 이모(李某)가 二十二일 동지김구원(金龜元)씨의집 헛산에서 二十五세가량의 거지가 머리와 다리에 솔로 맞아 죽은것을 보앗다고 인근주재소에 신고하엿으므로 즉시 검시를 마치고 범인수사에 노력한 결과 二十五일 동군 화평면 화평동(八院面...) 和平洞 시장에서 피해자의 처(?)와 그의 딸(?)을 대리고 도망하려든거지 김운하(金雲霞)를 체포하엿는데 젊은거지중의 늙은거지 김운하(金雲霞)는 동사하는 동시에 오산(五山)은 손이 라 여관도없고 학교의내빈숙소 도 기성회방(期成會房)이라 하고는 계집을 빼앗으려는 이 발생되엇다는바 사건의내용과 경과는 다음과같다.

五山高普에

三千圓喜捨

[고읍] 오산고보(五山高普)로 거리가 멀리한 상성(尙城)에 거주하는 강봉서(姜鳳瑞)씨는 동학교를 찾어왓다가 학교의발전을축하는 동시에 오산(五山)은 손이 라 여관도없고 학교의내빈숙소 도 기성회방(期成會房)이라 하고는 [illegible]

無軌道闖入者를

食刀로刺殺

수욕을 채우려다 피살

慶源安農梨洞의일

[나남] 지난 十八일오후 十二시경 경원군 안농이동(慶源郡安農面梨洞)에서 정소의 애정을 생각하고 여자혼자 있는방에 틈입한 남자를 식도로써 찔러죽인 상해치사사건이 발생되엇다는바 사건의내용과 경과는 다음과같다.

전기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세 자인 최성녀(崔姓女)는 피해 리에 사는 최기록(崔基祿)과 한동리에 사는 정곤석과 정소부터 가깝게 지내든사이엇으며 최기록은최성녀의 미모에항상야심을품고 야서 몰래찾어와 처신을 하엿다...

五千圓을寄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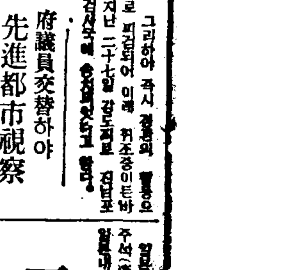
母校發展爲해代로

[서흥] 서흥공립보통학교(瑞興公普)는 지금으로부터 二十五년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illegible]

人事相談所

[청진] 청진경찰서에서는 청진부내에 인사상담소(人事相談所)를 설치하고 지난 二十二일부터 사무를 취급하엿다는바 그 정도의 사건은 취급치 아니하고 극히 상식적인 사건만을 가장 친절히 취급한다고 한다.

三三五五로 散策 (錦繡山公園所見)



信消息

會合

消息

若々しく―すっきり色白くなる

ウテナ 雪印 バニシングクリーム

無脂肪性

꽃이라면한창!

고은―――젊은살을만드는
雪印クリーム는皮膚의榮養料입니다
白粉이써잘오르게하고
여드름과살거츨음을防止합니다

한창피인櫻花色!
明朗하고―――얌전한
ウテナ의 化粧生色し

말숙하게살속으로녹아숨여서
조곰도끈저거리지안코
발른맛이 썩조흔것이 純良無脂肪 크림
雪印의 特長입니다
계다가、까실까실乾燥하지안코촉촉해서、
肌膚가 부드러워집니다。
肌膚의弛緩이緊張해서
彈力잇는아름다움이되고
艶麗하고 상결고운 젊은살이됩니다
健康的인 힌빛갈로 肌膚를整頓하야
여드름의原因이되는 過剩한脂肪分을中和하야
白粉이써잘오르게하고
化粧이벗지안케합니다

素化粧에……
化粧下에……
沐浴後에……
面刀後에도……
ウテナ雪印クリーム

잘오르고、色味조코
化粧이벗지안코
肌膚에
第一조흔ウテナ粉白粉

수고나時間이안걸리고、簡單히
어떤분의肌膚에나곱붙어붙어서
얼룩이없이곱게오르고――
自然스럽게아모런곳이나
肌膚에맞는것이特長입니다。

ウテナ粉白粉

肌色
濃肌色
健康色
オークル一號
オークル二號
ナチュレル
ブルン

東京 久保政吉商店

應接室

◇應接室規定抄

1、一人一次에 一件으로 限함.
2、用紙는 葉書, 封書는 不可.
3、質問은 簡單, 內容은 一般的.
4、明記로 氏名, 住所明記.

▼讀者 [illegible]

▽記者 [illegible]

▼讀者 [illegible]

▽記者 [illegible]

▼讀者 [illegible]

▽記者 [illegible]

▼讀者 [illegible]

▽記者 [illegible]

▼讀者 [illegible]

▽記者 [illegible]

應接室別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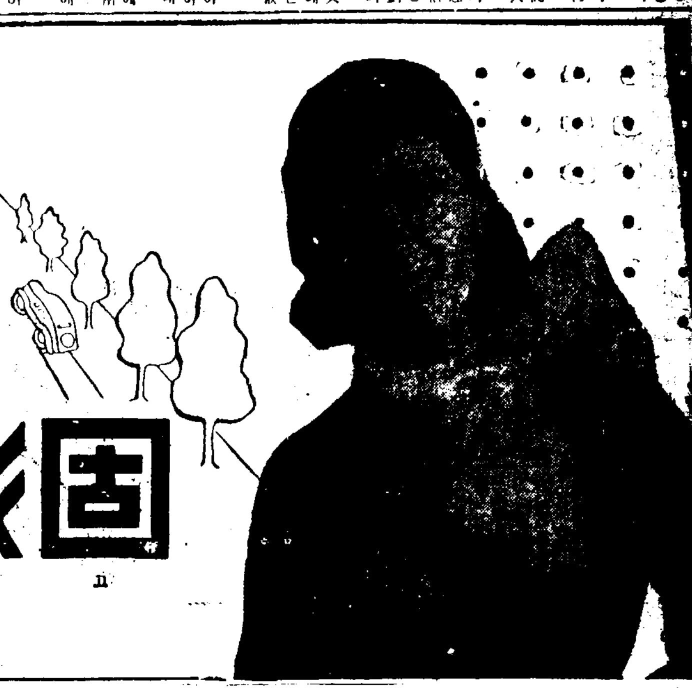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

○開城讀者。[illegible]

네거리集

[illegible]



봄엔
맵시나는
明朗化粧

小鳥와
같이生氣잇고
春風과
같이香氣롭고
꽃과도
같이아름다운
지금! 流行하는
近代化粧

固形タンゴドーラン은 [illegible]

最高級化粧用パフ付

固形タンゴドーラン七色 [illegible]

固形タンゴドーラン
고형 탕고도-랑

[illegible] 本舗 東京・大阪

飲해라! 그
러고이力을
몸에너흐라

力!을豐富
하게蓄積한
葡萄酒이다

●身體의에게
무기ー根源으로最優秀品!
葡萄糖과果糖
●血液骨骼의
構成要素로不
可缺한것●鐵
●칼셈●이것
等이本品의主
成分이다

醫界의諸權威五十醫學博士

●蔗糖을含有
한粗製品과混
同이업도록願
하며●本品의
甘味를내는것
은專혀前述의
榮養素·葡萄
糖과果糖으로
絕對로蔗糖은
아니다

고무리推狀을受한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트 와인

一回効散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大効

[illegible]

本舗 [illegible]

◇ユナイテッド超大作日本版
戰ふ巨象
ロナルド・コールマン・ロレッタ・ヤング主演
モダン騎士道
サーカス五人組
[illegible]
若草映畫劇場

頓馬暗루ー가
曲藝天國
影法師
第一劇場

長生不老의 [illegible]
陽虛한男子는生不如死다 [illegible]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驗効가 有한 바 北洋寒帶地方의 產物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產物檢査所에서 嚴正檢査證明한 世界的高貴의 眞品이다 一服하시면 그 神効함을 能히 料量하실 것이외다 求服을 願하시는 분은 說明書請求次第 곳 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三二三番地之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 二二三九番
振替 釜山七九一三番

スラスラと思ふまゝ自在に書ける!
プラトン萬年筆用インキ
五十錢

스포-츠

第四回全朝鮮 女子卓球大會 五月二十三日(土)에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로

朝鮮女子體育奬勵會에서는 昨年 ... 第四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를 五月廿三日(土)午後一時부터 ... 開催하기로 하고 大體로 大會規定을 다음과같이 決定하엿다. 그리고 同會今年度 第四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를 六月六日午後三時에 열기로하엿다

一、大會期日 五月廿三日(土)午後一時부터

一、大會場所 ...

一、參加申請 五月廿一日正午까지 ...

一、競技規則 ...

一、使用球 TY球

府內六中等校 庭球聯盟戰日割

本社後援의今年度리그

府內中等校庭球聯盟主催, 本社後援의 今年度 六中等校庭球聯盟戰은 日前에 聯盟加盟校 庭球部 代表者會에서 오는六月十二日(金)十三日(土)의 兩日間에 열기로 決定하엿다. 第一日에는 午後四時부터, 第二日에는 午後二時부터 ... 열기로 하엿다. 組合은 다음과같이 決定하엿다. 會는 第二運動場에 열기로하엿다.

▲六月十二日(金)午後四時

(A)徽文—養正、中央

(B)中央—普成、徽文—中東

(C)中東—儆新、儆新—普成

▲六月十三日(土)午後二時

(A)中東—普成、徽文—儆新、中央—儆新

(B)養正—儆新、中東—中央、徽文—普成

(C)徽文—中央、養正—普成、養正—中東

380戰에常勝한 拳鬪 ―조사크라멘트等 國際選手入京

上海짜크朴選手와함께

東洋拳鬪會後援會와 朝鮮拳鬪會主催로 五月初旬 京城에열리는 一大國際拳鬪戰에 出場할 上海의 짜크朴(朴濟禧)、조사크라멘트 兩選手와 마네저 ... 氏等三名은 ... 案內로 入京, 二十八日午後本社를 來訪하엿다. 짜크朴君은 上海에 在留十九年 ... 東洋選手權을 가지고 ... 比律賓選手로서 ... 조사크라멘트選手는 拳鬪生活十數年에 三百七十戰, 그中에 五十勝을 除하고 三百六十戰을 이겻다는 常勝에 빛나는 鬪士다 ... 이들의 技倆은 ... 內外拳鬪界에 ...

올림픽陸上陣 京城에下車

今夏伯林올림픽에 派遣될 日本陸上競技選手一行 約六十名은 시베리아經由, 渡歐의途, 來六月九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 ... 一泊하야 京城運動場에서 가벼운練習을 하고 翌十日午後 ... 征途에 오를 것을 朝鮮體育協會에 通知가 왓다고 한다. 이리하야 同協會에서는 一行을 맞어서 歡迎招待會를 開催하 ...

中國蹴球選手 日本汽船拒絕

[香港二十二日發同盟通信] 今年度 世界올림픽에 中國代表로 出場할 香港蹴球團一行 二十四名은 二十二日 日本汽船 龍田丸으로 上海로 向할 ...

[illegible]

全朝鮮都市對抗戰에 京城蹴球團優勝

平壤曾의後半力戰도休矣

京城3(2—0 1—1)1平壤

朝鮮中央日報主催 第一回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決勝戰은 二十八日午後四時二十五分 京城運動場에서 ... 氏(主審) ... 氏(線審)審判으로開戰, 京城軍 一日之長을보이면서 前半戰六分과 二十五分에 各一點을넣어 이서 餘裕를 보이면서 前半戰을 마치고 後半戰에 들어가서 平壤軍 風上을 利用하야 猛烈한 反攻을 開始하엿으나 二十三分에 도리어 京城軍에게 一點을 빼앗기고 卅五分에 一點을 回復하엿으나 結局 三對一로 京城軍이 勝하엿다.(所要九十分間)

◇審判은 優勝한 京城蹴球團의 멤버 ...

比只島蹴球經過

[江西] ... 主催 ... 蹴球大會를 開催 ... 少年七, 靑年十三팀 參加의 ... 少年은 ... 靑年에는平壤興光이各各優勝하엿다.

英國의 作戰 英國은 ...

... 英國協會에서는 ... 交涉中이든바 ... 이에 對하야 旅費를 ... 拒絕하엿다 ...

◇日本陸上陣四方에서招聘올림픽 日本陸上代表軍의 歐洲遠征에 際하야는 ... 체코, 佛蘭, 諸國으로부터의 招聘申請이잇섯는데 ...

데亞歐洲손獨逸勝

[바로세나廿六日發電通] 데亞歐洲손第一回戰 獨逸對西班牙 複式은 ... 獨逸이 ... 勝하엿다.

獨逸、西班牙를一蹴

東京招致의本格的

... 東京招致委員會에서는 十四日午後三時부터 文部省에 ... 東京에 더욱 好轉한 ... 招致運動에 ... 七月末 伯林의 올림픽總會까지 ... 行할 招致具體案 ...

運動界動靜

▲朝鮮蹴球協會에서는 오는五月十日 東京에서 日本蹴球協會의 ... 中一人 ... 京城出發 ... 한다

▼리비 京城俱—商工 二時半京商俱—道商(四時) 龍山野球場

오늘의運動

力技와體操終了

南壽逸君輕輕體級優勝

中央基督靑年會主催, 第九回全朝鮮力技選手權大會와 第六回全朝鮮器械體操大會 第二日은 二十八日午後八時 同會館에서 擧行하엿는데 力技에는 輕輕體級에 南壽逸、輕體級에 金泰 ... 中體級에 金慶集君이 各各從來의 記錄을 突破하고 榮譽의優勝을하엿으며 器械體操에는 李正主君이 優勝을하엿다 ... 그成績은 다음과같다.

(戰績은明日에)

스포-츠의史的批判 ⑤

東京三五俱樂部 前全日本마라손選手 金恩培

體育的으로본文藝復興과宗敎改革

約一千年이란 긴사이의 武士道라는名稱에 갇히어 潛在하여잇든 스포-츠는 所謂文藝復興期에 들어와서 新興스포-츠라는 自體가 光明의世界로 나타나게 되엇다. 지금 中世紀時代의 生活을 생각해보면 그當時에는 僧侶의道, 武士道, 또는 어느種類의 哲學等에 人間의 모든感情은 抑壓되엿든것이다. 不自然한 生活을 하고잇엇든것이다. 이와같은 專制的 社會現象에 ... 하는 時代가 ... 되엿다.

다. 모든사람들의 心理는 如何한方法을 取해서든지 이社會的壓制와 束縛의 世界로부터 버서나 自由한 新天地로의 生을 求하려고 無限히 努力하엿든것이다. 그러나 努力은 絕對로 無意味가아니엇든것이다.

그네들의 努力的鬪爭는 이지음 外界로부터 一面으로 도리어 안으로부터 解放되어 — 新局面에 進步하야 그들은 그것에서 새롭스러운 生의길을 發見하엿다. 學者들은 現在하여잇는 文學과 藝術上에 ... 世界를 ...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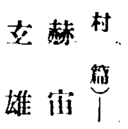
◇…祖孫을 放射하엿든것이다. 그리고 古代의 生活이 얼마나 自由스럽고 또그것이 現在그네들이 渴望한 理想의 世界이엇든것에 마음이쏠리엇든것이다. 그리하야 모든 不自然的인 舊體는 轉向되어 이지음까지 非常한舞臺에서 일하든役者들은 華麗한 本舞臺로 出演하게 되엇다. 그리하야 그네들이 가진役을 充分히 活動하기 始作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舊體는 顚覆되엇다.

그럼으로 大體的으로 美術, 文學의方面은 勿論이요 思想界, 社會狀態에 여러가지 方面으로 一大轉化를 하엿든것이다. 이와같이 하야 몇世紀間 숨어잇든 人間의 本能이 表面化하엿든것이다. 그럼으로 이 ... 運動은 여기서 다시금 更生의 길을 밟게되엇든것이다. 現代사람들은 이것을 文藝復興期라고 하엿다 ...

宗敎改革에 關하야 ... 한 것이다. 그러고 宗敎改革에 關한 ... 을 說述치안으면 안될어떠한 責任을 느끼게되엿다.

이宗敎改革에 關하야 이番說述함은 어떠한 意味에잇어 必要도 없을는지 몰으겟으나 그러나 宗敎改革으로 因하야 敎育制度가 全然 變하야짐에 따라 敎育中에 體育을 ...

◇…體育 이라는 課目을 重要視함은 ... 이宗敎改革도 巧妙한 스포-츠와 같은 것으로 認識하는데잇어 ... 안될가한다. 自己的 ... 에잇어 說述하고저 한다. 中世紀時代의 僧侶들은 우리들이 想像치못할만치 放縱한 頹廢한 享樂에 耽하고 잇엇든것이 이다. 한例를든다면 그네들이 唱道하는 主義가 長久間 社會를 支配하든 것이다. 또는 그것에 ... 敎會 ...



黎明期

―(農村篇)―

張赫宙作

鄭玄雄畵

(102)

탈출여파 2

「집안이 망할라면 다 그런 법이오」

「신여원이 얼굴 좀 보구 싶잔소.」

일도는 입을 벌려 크게 웃고는 막걸리를 쭈욱 넘겻다.

「아—따 그 술맛 좋타.」

술잔을 노코 도야지 구운것을 하나 집어 올리며

「제—가 저러고도 면장질을 해!」

「어쩌노. 제 살릿이 아니니 그냥 둘어 잇서야지.」

「흥. 말 마오. 어서 면장 운동이나 시작하오. 이번에는 강태형씨 면장되는 꼴을 하번 보겟네. 아이고 눈이 시여서……」

「하, 하, 하…….」

강태형이는 배속에서 튼내듯이 요란히 웃으며,

「에이 여보! 내가 이 나이에 면장은 무슨 면장!」

그리 실치도 안타는듯이

「자, 한잔하시고. 그러고 조흔 씨헌테 가서 그 뒤 경과나 듯고 오시오.」

「그래그래」

일도는 화색이 나서 버—ㄹ거케 된얼골로,

「아—참! 인제 우리 세상이 되나 보네. 하하하!」

서 따루어 먹기 시작하엿다.

「아따! 이양반아! 이러케 봉채 쩍 날려 인다고 눈을 팔게 되겟소?」

일도는 덤벼들어 술병을 빼앗으려고 하거니 태평이는 안뺏기려고 술병을 높이 추켜들고 일도의 손을 막거나 하고 자난한듯 한다.

「자, 편지오.」

하고 팔운장이 머리를 숙 들이밀엇다.

「편지?」

태형이는 쪽지를 받어 읽더니 술병을 내던지고

「이크! 이게 먼가?」

하고는

「좀 이놈들이 인제 콩밥을 단단이 먹게 된게로구나!」

「누가? 그거 조흔까 편지오?」

음내갓다 언제 왓엇대?

「어제 저녁때요. 퇴우랑 인숙이하구, 영출이놈이 모조리 잡혓다는데요.」

팔운장이 대답하니

「퇴우가? 아이고 적제(赤帝)가 뽐려저서 내려가는것 같네. 자 술이나 더 합시다.」

일도는 파하주 병을 실큼 들어

술얼재수소 주임!초중씨는…」

「하, 하, 하, 에이 일도씨도! 그런 소리랑 나종 허구 어서술이나 드오. 자 어거나 파하주 요.」

「과하주? 아—좋지 좋아!」

일도는 남이 제법 후둔후둔에 진김이랑.

「아—따! 그것참 속이 한희터 워지구려. 어—맛좋아!」

잇다라 두세잔을 청하니

「그만 합시다. 귀한 술인데 그러케 많이 자시면 되오.」

태형이는 작난하듯 웃으며

「내 식전술로 꼭 한잔식 하는

「양반의 지안에 그게 다 무슨 짓이오」

황일도는 김진사의 말소리를 흉내 내어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것을 보니 우리 집안도 인제 다 되엇소」

「하, 하, 항……」

태형이는 무릎을 탁탁 치며 일도를 보고 웃엇다.

「자, 일도 우리 술한잔 합시다」

술상이 들어오므로 태형이는 술을 따루며

◇…革命 은 決코 一朝一夕에 된것이 아니라는것을 現實에서 살아가는 人 ...

... 그러나 世人들은 ... 하는 모든이들은 ... 一個의 純一한 ... 의 젊은 ... 를 ... 것이다 ...

우리의 스포-츠가 이學校制度의 한課目으로되엇음은 勿論이요 따라 敎育的 體育論의 ... 體育論에 關한 ... 이다 ...

一粒三百메—트르

運動에 遠足에 旅行에

グリコ株式會社 (東京·大阪)

●一服明快試驗 はれやか『II』●

담배먹는이의

齒磨スモカ

スモカ는主로喫煙家의齒磨입니다 故로スモカ를使用하면齒牙의까닭이잡니다 그러고喫煙家가아니라도누구의齒牙나純白으로빛나게합니다 スモカ는適度의硬價으로생기는齒석을防止하야口臭를防止하는狀態에잇게합니다. スモカ의粉末에는適度의硏磨劑가잇습니다 그것으로喫煙의齒垢를防止하는것입니다 一人一個의使用量은 約一個月 그以上의消費量입니다

定價十五錢

五月號 新東亞 發賣中

四月廿九日부터五日間 午前十一時부터六時半까지 ... 七時半開映 ... 에나 이대로 ... 品

다—쿠、엔젤 ...

◇R、K、O라지오、바이오그나아 ... 手기소主演 ...

虛榮의市

女子의若多한 ... 朝鮮의市에 ... 前例없는大 ...

朝鮮劇場 [電光一一八一番]

우리옷감 대구성광목

本社京販 電話光七二〇

訃告

(堤川)東亞日報社堤川支局長安漢益氏夫人堤川公立普通學校在勤訓導金玉順氏는(금년서른여섯)으로京城大學病院에入院治療中 四月二十五日午後一時死亡

一、葬日 四月二十八日 ...